

# 우수 포장인력 양성 통한 기술·인력적 세계화 기대 美 미시간주립대, 충남대학교 포장공학과 교육과정 개설



서영범

충남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환경임산자원학부  
임산공학전공 교수

미국 미시간주립대 포장공학과가 충남대에 분교 형식의 교육과정을 개설, 학생 모집에 나서고 있다.

향후 미시간주립대 소속 교수가 충남대에 파견돼 충남대 교수들과 함께 학생들을 영어로 강의하고 학생들은 두 대학의 학위를 동시에 취득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국제화시대에 걸맞은 포장 인재를 양성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충남대 포장공학과와 정도 탄생을 위해 애쓰고 있는 서영범 충남대학교 교수를 만나 포장공학과 설립 경위와 향후 계획에 대한 입장을 들어보았다.

-편집자 주-

서영범 충남대학교 교수는 현재 미국의 미시간주립대 학교와 의견 교환을 통해 교과과정과 학생들 모집, 시설 문제, 졸업후 진로 등을 고려하고 있다.

그는 “충남대의 포장공학과가 국내 및 국외의 포장관련 사업체와 단체들과 긴밀한 협력하에서 발전하도록 조직적인 체계를 갖추는 일을 하고 있다”면서 “충남대가 중부권, 교통의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고려해 유통과 관련된 포장산업에 무게중심을 실을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충남대학교 포장공학과는 미시간주립대학이 충남대에 먼저 제안을 하고, 충남대학교 총장과 학교 주요 관계자들의 포장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실현됐다.

지난 6월 미시간주립대학의 도시계획과와 포장공학과에의 개설에 관한 양해각서가 맺어졌고, 9월, 교육부로부터 두개 학과개설에 대해 인가를 얻으면서 충남대학교 포장공학과에의 학생모집, 교육방식 등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진 것.

이 과정에서 미국의 뉴욕주립대에서 제지학 박사학위 취득하고 1994년까지 미국의 International Paper의 중앙연구소에서 책임 연구원으로 재직한 바 있는 서영범 교수가 책임자로 발탁, 현재 포장공학과에의 성공적 출범을 위해 책임을 다하고 있다.

충남대학교 포장공학과는 미국학생 10명, 아시아 학생 10명, 한국학생 30명으로 한 학년을 구성할 계획이며, 강의는 모두 영어로 진행될 예정이다.

서영범 교수는 “수능 2등급 이상을 입학자격 조건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일정수준 이상의 영어실력을 기본으로, 교내 외국어 교육원에서 집중적인 영어교육을 시킬 예정”이라면서 “내실 있는 시작을 위해 2005년도 학생모집보다는 2006년도 학생모집을 실시하자는 의견쪽으로 의견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교수진 구성에 있어서도 미시간주립대 포장학과 교수들이 항상 세명씩 상주하고, 교양과정과 전공의 일부는 영어강의가 가능한 한국 교수들이 전담할 것으로 보인다.

서영범 교수는 “졸업 후 미시간주립대 학사 학위와 충남대 학사학위가 동시에 수여되며, 학점평균이 B 이상이면 미시간주립대의 대학원에 무시험 진학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충남대 포장공학과 졸업생들은 영어권의 어느 나라에서도 근무가 가능할 것이며, 미시간주립대라는 세계적인 포장학과 졸업장을 가지고 국내 포장산업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충남대 포장공학과에의 차별성을 밝혔다.

서영범 교수는 “우수 학생 유치를 위해 애쓰는 만큼 충남대에서 우수한 세계화된 포장공학 졸업생들이 배출된다는 사실을 포장 업계에 공포해 인재들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길 바란다”고 말하면서 “포장공학과에의 성공적 출범을 위해서 산업자원부를 비롯한 정부의 지원과 산업계, 관련단체들의 학과 실습, 연구기자재의 확보, 장학금의 제공, 공동연구 프로그램의 개발, 인력양성프로그램의 개발 등에 대한 협조를 부탁한다”고 바람을 표했다.

현재 미시간주립대와 충남대학간의 유기적 결합으로 포장공학과에의 성공적인 탄생과 발전을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충남대학교 포장학과가 포장의 기술적, 인력적 세계화를 통해 포장산업을 경쟁력있는 산업으로 육성해 나가는데, 역할을 다하길 기대해 본다. ☐

박초혜 기자